

보도시점 : 2026. 7. 13.(월) 11:00 이후(7. 14.(화) 조간) / 배포 : 2026. 7. 13.(월)

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,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AI 도시의 미래를 만나보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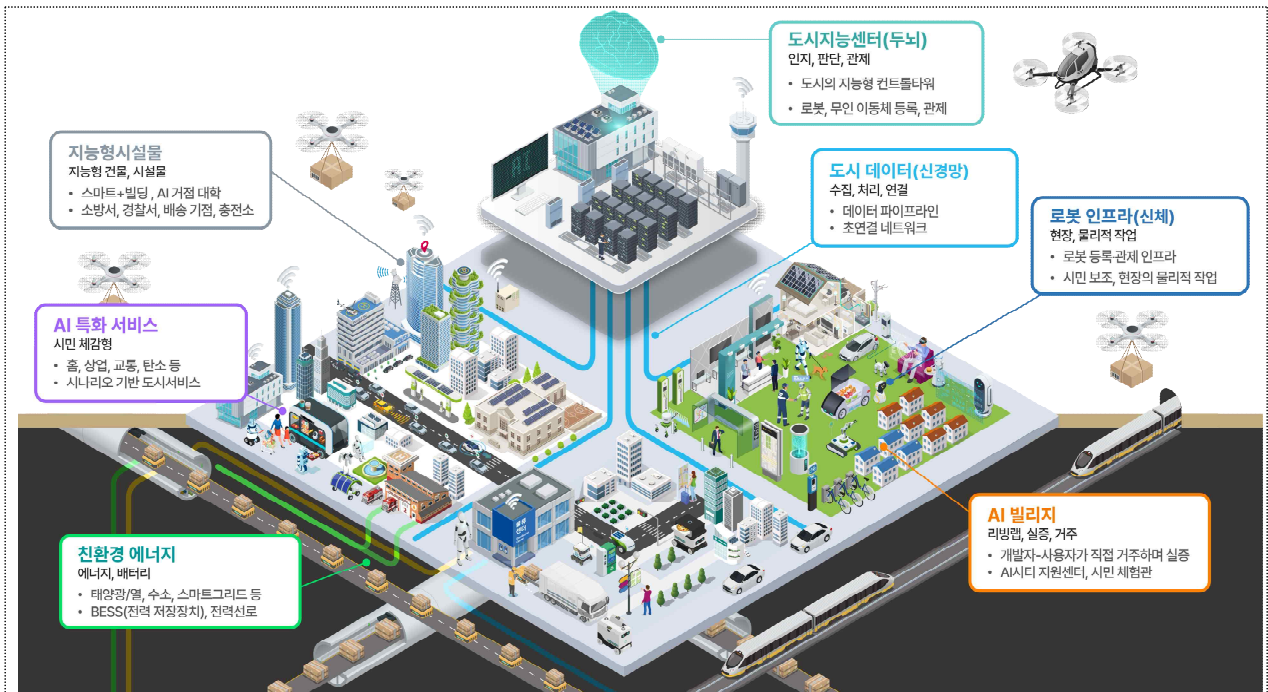
【관련 국정과제】 31. 미래 모빌리티와 ‘K-AI 시티’ 실현

- 9월 9일(수) ~ 11일(금)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개최
- AI, 스마트시티 관련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배경훈) 및 부산광역시(시장 전재수)는 오는 9월 9일(수)부터 9월 11일(금)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「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」를 개최한다.
 -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을 시작으로,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, 전 세계의 정부·도시·기업·전문가·시민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.
 - 지난해 부산으로 개최지를 변경한 이후 전체 참관객 4만 2,958명, 참가업체 457개사, 해외 54개국이 참여하는 등 도시와 함께하는 행사로 발돋움하여, 올해 역시 부산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다.
- 행사는 정부의 인공지능 대전환(AI) 기조에 맞추어 ‘K-AI 시티’ 정책을 선보이는 첫 무대로, ‘Beyond Smart City, Into AI City(스마트시티를 넘어, AI 도시로)’라는 행사 슬로건에 맞게, 스마트시티부터 AI 시티까지 폭넓은 도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.

- K-AI 시티는 교통시설물 등 다양한 도시 인프라 운영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최적화·지능화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모델이다.
국토부는 지난달 18일 공모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, 충청남도 천안시·아산시(공동참여)를 선정하여 「AI 특화 시범도시 사업」을 추진하고 있다.

< AI 특화 시범도시 개념도 >



- 전시, 개막행사, 콘퍼런스, WSCE 어워즈, 기업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, 국내외 정부·도시·기업의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전시 분야는 AI·스마트시티, 건설·인프라, 모빌리티·교통, 에너지·환경 등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, 특히 AI 특화 시범도시로서 천안·아산과 원주가 AI 시티 공동관으로 참여해 구성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.
- 콘퍼런스는 스마트시티와 AI시티, 인공지능(Physical·Agentic AI), 미래 모빌리티 등 글로벌 핵심의제를 중심으로, 'K-AI 도시 정책 콘퍼런스' 등 산·학·연·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된다.

- 또한, 기업의 국내외 성과 창출을 위한 수출·구매 상담회, 대기업 매칭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으로,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누리집에서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 (<https://worldsmartcityexpo.com>)

□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“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기술을 통해 경험하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국내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으로,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전반에 더욱 큰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	김연희 (044-201-4845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빈 (044-201-4847)
	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	책임자	팀 장	조돈준 (051-888-4553)
		담당자	주무관	박주원 (051-888-4556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

Sep.9 WED-Sep.11 FRI

BEXCO, BUSAN, KOREA

World Smart
City Expo 2026

WSCE^{10th}

Beyond Smart City,
Into AI City

